다산포럼

송재소

회색 도시

노인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는데 노인 인구 비율을 보면 2000년에 7.2%이던 것이 2008년에 10.3%가 되었고 2020년이면 17.7%, 2040년이 되면 32%가 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속도라면 2026년경에는 노인 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국민의 영양상태가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것이 한 국가의 선진화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노인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다. 전통사회에서 특히 동양사회에서 노인은 존경의 대상이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국민을 '노백성(老百姓)'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백성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또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선생을 '노사(老師)'라 부른다. 젊은 선생도 '노사'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퇴계(退溪)를 더 높여 부를 땐 '퇴로(退老)'라 하고 목은(牧隱)을 '목노(牧老)'라 한다. 이렇게 늙을 '老'자는 나이가 많다는 뜻 이외에도 인품과 덕망이 높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노인을 존중하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은 아직도 남아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 경로석이 마련되어 있고, 지하철은 무료로 승차할 수 있으며 공원 입장료, 의료비 등에서 노인은 우대를 받는다.

옛날에 노인이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은 아마 노인 인구가 적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환갑 때까지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축하연을 베풀었으니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여기에다 풍부한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의 지혜까지 갖추었을 가능성이 많으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노인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다름 아닌 '노욕(老欲)'때문이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늙으면서 생기는 끝없는 탐욕, 이것은 분명 노인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지금은 노인이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 다소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 인구가 너무 많고 또 너무 오래 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세라면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서른 살이 되면 노인 1명을, 마흔 살이 되면 노인 1.2명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 한다. 지금도 노인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31%를 차지한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또 결혼하더라도 자식 낳는 것을 꺼려하는데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생명을 연장해가고 있으니 노인이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황혼의 반란'이라는 소설에 보면, 노인이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어 CDPD(휴식, 평화, 안락의 센터)라는 기관에 강제로 끌려가 주사를 맞고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공상소설이지만 참으로 끔찍한 이야기이다. 에이지퀘이크(agequake) 즉 '노령지진'을 예고하는 사회학자도 있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정말 '노령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진이 어디 인위적인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인가?

낡은 것은 소멸하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자연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건강한 사회가 될 터인데, 지금 우리 사회는 우중충한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다. 생기발랄한 초록빛이 아닌 잿빛 회색도시, 이건 분명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베르나르의 소설에서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 의료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70을 바라보는 노인임을 밝혀둔다.

〈성균관대 교수·다산연구소 제공〉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장덕일

느림의 미학 '숲 기행'

내 고향은 산골 마을이다. 산을 좋아했다. 그래서 산에 다녔다. 친구들과도 다녔고, 직장 동료와도 다녔다. 이제는 혼자서 산으로 향한다. 정상만 바라보며 걸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오르기 위해 쉬지않고 걸었다. 정상에 도착하면 둘러 보고 바쁘게 내려왔다.

산은 내게 올라가야 할 목적지였고, 정상에 다녀오면 어디 산에 갔다왔노라고 자랑삼아 얘기하고 나면 잊어버렸다.

그날도 아는 동생과 함께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 경치 좋은 자리에서 쉬던 중 동생이 질문했다. "이 나무 이름은 뭔가요?"라는 뜬금없는 질문에 한참을 나무만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많이 봤던 나무였다. 주변을 보니 소나무 말고는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나무가 없었다.

산골에서 살았고, 산에 다녔지만 산만 봤지 나무나 숲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어리석음을 느꼈다. 산도 좋지만 숲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 우연한 기회에 숲 해설을 듣게 되었고 광주·전남 숲해설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숲 해설교육을 받게 됐다. 그저 '나무 이름과 풀꽃 이름 정도만 배우면 끝나겠지'하고 시작했던 교육이 내게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숲에 가면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새롭다. 이름을 불러줘서 반갑고, 이름을 몰라도 만나줘서 반갑다.

과거 빠르게만 다녔던 산길을, 지금은 한 달에 한번 떠나는 숲 기행을 통해 느릿느릿 걸으면서 나무와 풀을 만난다. 산이 좋은 이유는 숲이 있기 때문이라는 쉬운 문제를 이제 알아가고 있다.

느리게 걷다 보니 옛길과 새 길의 차이도 느껴진다. 옛길은 구불구불 산새에 맞게, 숲과 계곡에 맞게, 사람에게 맞게, 호흡할 수 있는 길인 반면에, 새 길은 목표를 향해 빠르게 갈 수는 있지만 가파르고 자연스럽지 못하다.

정상까지는 못 가도 좋다. 그저 숲에 들어와서 온몸을 숲에 맡기고, 숲의 높이로 눈맞추고 인사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숲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운다.

숲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려 한다. 숲에 대한 많은 사업이 진행중이고 홍보활동 또한 적극적이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산에 들어갔고, 우리가 산에서 찾은 건강만큼, 이제는 우리가 산의 건강을 찾아줄 때인 것 같다.

도시를 만들고 도시 속에 '징역살이' 하고 있는 작은 도시 숲 하나를 놓고 개발이냐 보존이냐로 승강이를 하고, '케이블카를 놓는다', '도로를 뚫는다', '좀 더 근사한 골프장을 짓는다'는 생각보단 산의 건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인간들은 인간 중심적 생각만을 가지고 산 주변으로 모이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산이 좋아서 왔노라고, 산과 함께하겠노라고 한다. 산을 좋아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산이 돼봤으면 한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숲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생각으로 산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숲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한다. 그리고 산과 숲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산행을 했으면 한다.

〈광주전남 숲 해설가 협회〉

기고

조용진

'첨단 생산도시 광주'를 꿈꾼다

필자는 3년 만에 광주시 의회사무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광주시정을 하루라도 빨리 파악하겠다는 생각에 부임하자마자 주요 현안사업 현장부터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찾은 평동산업단지는 광주의 발전상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풀만 무성했던 곳이 공장들로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평동까지 지하철이 들어와 있고, 외곽도로 건설을 위해 말뚝만 박아 놓았던 도로부지에 국도 49호선이 시원스레 뚫려 있었다. 임곡방면으로는 진곡산업단지를 조성 중이었다. 이곳에는 2016년까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공장부지가 필요 없다고 정부에 반납했던 첨단산업단지 2단계사업도 재개되었다. 광주시가 유치한 미래 성장동력산업들이 들어설 공장부지가 필요해서다. 첨단산단의 대표산업인 광산업은 1999년 47개에 불과했던 업체 수가 327개로 불어났고, 매출도 1조 3천억 원으로 7년 만에 12배가 늘어났다.

광주가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도시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수출 100억 불 달성이다. 경쟁도시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울산과 인천 다음으로 2007년에 100억 불을 달성했다. 2001년에 30억 불에 불과했던 수출이 적극적인 산업육성정책으로 6년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공격적인 산업육성과 국비확보도 광주가 생산도시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광산업과 생활가전산업, 자동차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육성하지 않았다면, 수출 100억 불 달성도 어려웠을지 모른다. 또 2001년 4천516억 원에 불과했던 국비를 8년 만에 그 4배에 가까운 1조 6천492억 원 확보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R&D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광주시가 생산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데는 이처럼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것이 주효했다. 다른 도시들이 SOC에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 광주는 생산기술연구원과 전자부품연구원 등 7개 정부연구개발기관을 설립하여 광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등 미래산업 기술개발에 주력했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 초에 광주에 'R&D특구'지정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내년이면 첨단과 하남, 진곡, 소촌산단 일대 1천450만 평의 부지에 4천740억 원이 투자되는 '광주R&D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단지의 생산능력과 특구의 첨단기술이 결합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광산업과 클린디젤자동차부품산업, 디자인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LED산업, 가전로봇산업 등 21세기 미래산업들이 육성되면 '아시아의 사이언스 파크'가 될 날도 머지않았다.

지금은 일부의 그림이 그려졌지만 5년 후면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도시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광주' 건설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광주시민이라는 것을 긍지로 여기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1등 광주'의 기틀을 다지는데 앞장서 나가야 하겠다.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어려운 농촌 돕는 향우회 활동 다함께 동참을

나는 전남 무안의 농촌에서 태어나 살다가 학교 다니면서 성장했다. 그 후 대학에 가고 직장을 구해 지금은 결혼을 해서 이곳에 정착해 살고 있는 농촌출신 도시인이다.

이렇게 도시에 나와서 사는 사람들은 고향을 못 잊어 모두 다 향우회라는걸 만든다. 향우회라도 만들어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끼리 아쉬운 향수를 달래고자 하는 마음이며, 객지에 나와 살면서 고향을 잊지 말자는 취지이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농촌이 여러모로 어렵다. 그러므로 이 향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듯하다. 도시에 나와 있는 각 지역 향우회들이 자기 고향의 농산물을 사주고, 고향에 출연금도 내주고, 고향 어르신들을 찾아뵙거나 자매결연을 하는 일을 도와주자. 우리 향우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자주 한다.

또한, 자기가 다니는 직장과 1사1촌을 맺도록 주선하고, 자기회사 사람들에게 고향의 농산물을 사도록 권하자. 향우회가 그런 일로 고향을 돕는다면 진정 향우회 본연의 뜻을 펼치는 걸로 볼 수 있을듯하다. 전국의 모든 향우회들이 다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악취 심하다고 배수용 우수전 덮어서야

며칠 전에 도로를 걷다가 길가 배수용 우수전 위에 널빤지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실수로 떨어트린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보았다. 혹시나 해서 그 널빤지를 발로 툭 건드려 보았더니 그 밑에서 악취가 나고 날파리들이 들끓었다. 그 정도면 모기도 엄청나게 서식할 것 같았다.

최근에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 널빤지는 빗물 배수용 우수전에서 악취가 난다며 대개 근처 상인들이 나무나 콘크리트로 만든 널빤지로 막아 놓기 때문이라고 일러줬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우수전을 죄다 막아 놓는다면 집중 폭우가 쏟아질 때 제대로 배수가 되지 못하고 도로에 그대로 고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폭우가 내릴 때 시내 도로를 걷다가 특정한 구역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는 경우 발이 다 파묻히고 바지가 젖으니 시민들은 불가피하게 차도로 내려가 걷는 경우도 많다.

그런 위험이 있는데 단지 악취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우수전을 널빤지로 덮어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앞으로 이런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유병화·광주시 북구 일곡동

사설

당국자 대화 재개로 남북 긴장 해소해야

현대그룹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5개항에 합의했다. 다섯 차례나 방북일정의 연장끝에 이뤄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결과다.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남측 민간사업자와 북측 대남경협 창구 간 만남의 결과에 불과하다. 당연히 합의 내용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등의 조치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차례 회담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북측이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측 주장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나 남북 모두 대화 재개에 공감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경제·교육·재정·인프라·생활 향상의 대북 5대 개발프로젝트를 포함해 '한반도 새 평화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북측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중단된지 1년7개월째인 이산가족 상봉을 서둘러야 한다. 불과 한달 반 밖에 남지 않은 추석 명절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적십자 회담을 먼저 여는 것이 급선무다.

북한측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대북 교류에 관한 원칙을 견지하되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류의 숨통은 틔워놓아야 한다. 과거 정권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 퍼주기식'으로 매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혁신도시 지하수오염 방치할 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후보지인 나주시 일대에 못쓰게 된 우물(폐공)들이 대거 방치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나주지역에는 7천500여 관정이 신고돼 있으나 나주시와 토지공사 등 시공사에 접수된 관정의 수는 592곳에 그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관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때문에 혁신도시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은 수천 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의 63%가 이주를 마쳐 실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폐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다. 지하수 개발 이후 용수 고갈 등으로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제대로 봉인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바람에 농약·중금속 등이 유입돼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1993년 국내 처음으로 청색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수 오염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폐공을 사실상 방치해 왔다. 지하수를 끌어쓰기 위해 마구잡이로 우물을 파고 있으나 얼마나 뚫었는지, 못쓰게 된 우물은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못쓰게 된 폐공은 오염되지 않도록 봉인해야 하지만 각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가 뒤늦게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물 이용부담금을 물리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폐공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는 물론 지역발전의 화두는 녹색 성장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도 친환경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녹색산업의 상징이 될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가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 후보지 일대라도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폐공 관리에 나서야 한다.

無等鼓

병상정치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넘었다. DJ는 그동안 몇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초인적인 의지로 안정적인 병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루고 노벨평화상 수상 등 굵직한 발걸음을 남겨온 DJ는 병상에서 다시 한 번 '큰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DJ 입원 동안 '병상정치'가 전개되고 있다. DJ와 '경쟁과 협력자'관계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병문안하고 "이제는 서로 화해했다"고 선언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YS는 DJ와 함께 암울한 군사독재 시절 목숨을 건 민주화 투쟁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등불을 켰지만 경쟁 또한 불꽃을 튀어 그가 말했듯 '애증'이 교차했다. DJ 입원 직전 갈등이 고조됐던 이명박 대통령도 병원을 찾아 덕담을 건넸다.

DJ 병문안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병원을 찾은 일일 듯 싶다. 그는 지난 14일 병원에 들러 이희호 여사를 위로하고 "DJ때 전직(대통령)들이 가장 행복했다"고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DJ가 전직 대통령들을 가장 많이 청와대로 초청했고 국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전 전 대통령의 병문안은 DJ와의 악연을 씻는 계기로 받아들여졌다. 전 전 대통령 등 신군부는 DJ를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해 군사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했지만 DJ는 5·18, 12·12로 사법처리된 전 전 대통령의 사면에 앞장섰다.

지난 15일에는 DJ의 정치인생 초기 최대 '정적'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병원을 찾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DJ에게 쏠리는 정객들의 발길을 보면서 그가 조금 더 건강했을 때는 왜 서로 화해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박치경 정치부장uni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